

경주지역 출토 석침에 관한 소고

慶州地域 出土 石枕 小考

윤근일

(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I

고분(古墳)과 베타(석침(石枕))의 관계(關係)를 볼 것 같으면 사자(死者)의 베타 가운데는 석제(石製)로 단체(單體)의 것이 압도적(壓倒的)으로 많으며 이것을 석침(石枕)(돌 베타)라고 한다. 그러나 그 외에도 횡혈식(橫穴式) 석실(石室)속의 돌지붕의 바닥이나 횡혈묘(橫穴墓)의 바닥에 베타의 형태(形態)를 만들고 움푹하게 파놓은 것과 석침(石枕) 밑에 베타의 형태(形態)를 파서 만든 것 등이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점토(粘土)를 구어서 베타를 만든 장방형(長方形)과 토기(土器)의 일부(一部)를 떼어내어 베타 대신(代身)으로 하고 있는 것 등도 있다.

우리나라 경주지역(慶州地域)에 있는 신라(新羅) 횡혈식(橫穴式) 석실분(石室墳)에서 부화품(副華品)이 많이 있어도 도굴(盜掘)로 인하여 유물(遺物)이 대부분 없고 시상대(屍床臺)만 설치(設置)한 상태(狀態)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시상대(屍床臺)위에는 석침(石枕)을 사용(使用)한 몇 예(例)가 있어 고찰(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경주지역(慶州地域)에서 발굴(發掘)된 신라(新羅) 횡혈식(橫穴式) 석실분(石室墳)의 구조(構造)와 석침(石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 고분(古墳) 구조(構造)와 석실내(石室內)의 구조물(構造物)과는 시기적(時期的)으로 차이(差異)가 있을 것이고, 또한 가까운 일본(日本)의 석침(石枕)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①서악리 석침총^{1),2)} (西岳里 石枕塚)

경주시내 서쪽 선도산(仙桃山)에서 무열왕릉(武烈王陵) 남(南)쪽에 구릉(丘陵)의 경사면(傾斜面)에 있는 고분(古墳)으로 크기가 남북(南北)이 4.8m, 동서(東西)가 2.41m인 장방형(長方形) 석실분(石室墳)이며 동편(東便) 중앙(中央)에 선도(羨道)가 달려있는 상태(狀態)다. 벽면(壁面)은 회(灰)를 발랐으며 네벽(壁)은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씩 안쪽으로 경사(傾斜)가 졌고, 천정(天井) 높이는 바닥에서 2.21m이다.

석실(石室) 바닥에는 시상대(屍床臺)가 남편(南便), 북편(北便), 서편(西便)에 설치(設置)되었고, 서벽(西壁)쪽 시상(屍床)에는 남향(南向)으로 두부(頭部)만 새긴 석침(石枕)

1) 朝鮮總督府, 「朝鮮古墳圖報」 3, 1916, 圖版 1128~1130, 1160~1169

2) 新羅高粉研究, 崔秉鉉, 一志社, 1992. 1. 15, pp. 434~529

이 놓였다. 또 석침(石枕) 북편(北便)에는 족부(足部)로 보이는 곳에 3매(枚)의 돌로 족좌(足座)를 만들어 놓았다. 그렇다면 남편(南便) 시상(屍床)과 북편(北便) 시상(屍床)에는 유물(遺物)을 부장(副葬)했을 것인데 유물(遺物)은 극히 적은 양(量)만 출토(出土)되었다고 보고자는 전한다.

② 충효리(忠孝里) 7호분(號墳)³⁾

충효리고분군(忠孝里古墳群)의 가장 아래 끝에 있었던 파괴분으로 봉분(封墳)은 동서(東西) 직경 20m, 남북(南北) 직경 16.5m이고 봉분(封墳) 높이가 약 4m였다.

석실(石室) 크기는 동서(東西) 2.90m, 남북(南北) 3m로 평면이 방형이며 네벽은 크기가 일정치 않지만 큰 할석(割石)을 쌓고 회(灰)를 발랐다.

석실(石室) 바닥은 회(灰)를 깔아 벽에서 떨어져 북반부에 동서 방향의 시상(屍床) 하나를 설치(設置)했다. 시상(屍床)길이 2.17m, 너비 1.28m, 높이 0.67m였는데, 남쪽에 너비 31cm의 낮은 단(壇)을 덧붙였으며 전면을 회(灰)로 발랐다. 석실 바닥에는 인골(人骨)도 약간 수습되었고, 두견부(頭肩部) 1석(石)의 석침(石枕) 1개와 족좌(足座) 2개와 수키와 8매(枚)가 출토(出土)되어 2인이 매장된 것을 추측(推測)할 수 있다.

선도(羨道)는 남벽중앙(南壁中央)에 달렸는데 길이 2.28m였다. 석실입구는 양쪽에 화강석으로 문주석(門柱石)을 돌출(突出)시켰고, 문주석(門柱石) 밖의 선도(羨道) 바닥에는 편평한 할석(割石) 4개를 문지방석으로 깔고 문지방석 안쪽에서 역시 편평한 할석(割石)으로 문턱을 1매의 가공한 판석(板石)으로 세웠다. 판석비(板石扉)는 좌측하단(左側下端)에 축(軸)이 돌출되어 문지방석의 축(軸) 구멍에 끼웠으나 상단(上段)에는 축(軸)이 없이 미석(楣石)과 연도 천정석(天井石) 사이에는 할석(割石)을 끼워 고정(固定)시켰다.

석침(石枕)은 장방형(長方形)으로 넓은 폭이 52cm, 길이가 25cm이다. 족좌(足座)는 완전(完全)한 것이 41cm×11.4cm이고 족좌(足座)의 중앙에는 13.3cm×15cm×8cm의 사각(四角)으로 굽어 내었다.

③ 쌍상총4)(雙床塚)

경주시내 평지(平地) 고분(古墳)에 위치한 평지석실분(平地石室墳)으로 노서동(路西洞) 137호분(號墳)이다. 도굴(盜掘)된 폐고분(廢古墳)으로 봉분(封墳)은 크게 훼손되고 직경(直徑) 17m, 높이 5m로 추정된다. 석실(石室)은 지면(地面)위에 남향(南向)으로 설치(設置)되었는데 동서(東西) 3.3m, 남북(南北) 3.0m의 방형평면이며, 4벽은 석실(石室)안쪽으로 드러나는 면을 직(直)사각형으로는 크기를 비교적 일정(一定)하게 치석(治石)한 할석(割石)으로 단(段)과 열(列)을 맞추어 쌓았으며 회(灰)를 발랐다. 석실(石室)은 바닥에서 높이가 천정(天井)까지 3.6m 정도였다.

석실(石室) 바닥은 회(灰)를 깔고, 중앙에 동서방향(東西方向)의 큰 시상(屍床)이 벽과의 사이를 두고 설치(設置)를 하였다. 시상(屍床) 크기는 동서(東西) 2.3m 남북(南北) 1.5m이고 후에 남(南)쪽으로 50cm 덧대었다. 시상(屍床)의 높이는 30cm이며 회(灰)를 전면(前面)에 발랐다. 원래 시상(屍床)은 6매(枚)의 판석(板石)에 사람의 형태(形態)를 파내어 새긴 돌 자체가 시상대(屍床臺)의 두향(頭向)을 동(東)으로 향(向)하게끔 처리(處理)를 하였다. 또 확장된 시상(屍床)은 두부(頭部)와 견부(肩部)를 이어서 좌우(左右)로 반쪽씩 새겨 맞춘 2매석(枚石)의 석침(石枕)과 역시 좌우 2매로 맞춘 족좌(足座)가 놓여 있다. 선도(羨道)는 서악리(西岳里) 석침총(石枕塚)의 선도(羨道)와 같은 양식(樣式)으로

3) 有光教一「慶州忠孝里石室墳調查報告」〈昭和七年度古蹟調查報告〉第二冊, pp.26~32

4) 金載元, 「雙床塚調查報告」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第二冊, 1955

보이고 있다. 이 선도(羨道)는 남벽(藍碧) 중앙(中央)에 달려 있는데 길이는 약 3m이고 선문(羨門) 양쪽에 문주석(門柱石)을 돌출(突出)시키고 밑에 문지방석을 놓고 2매의 가공한 판석비(板石扉)를 달았다. 비(扉)에는 귀면(鬼面)으로 된 청동제(靑銅製) 좌판(坐板)에 긴 문고리가 하나씩 달려있고 그 아래에 철제 빗장이 채워져 있었다.

④서악리(西岳里) 석실분(石室墳)⁵⁾

서악서원(西岳書院) 서북(西北)향에 선도산(仙桃山) 경사면(傾斜面)에 있는 고분(古墳)으로 봉분(封墳) 전반부에 괴석(塊石)을 호석(護石)으로 쌓았고 크기는 직경(直徑) 15m, 석실 높이 4.35m이다. 석실은 지산(地山) 후면(後面)을 깊이 90cm 정도로 정지하여 설치(設置)하였으며, 석실의 크기는 동서(東西)길이 2.7m, 남북(南北)길이 2.65m인 장방형(長方形) 석실(石室)이다. 석실(石室)바닥은 자갈을 깔았고 네벽은 크기가 일정하진 않지만 할석(割石)으로 쌓고 회(灰)를 발랐으며, 석실입구(石室入口)의 미석(楣石) 높이까지는 수직으로 올라가 위로부터는 급하게 안쪽으로 좁혀지면서 천정(天井)을 넓은 판석(板石) 2매(枚)로 덮었다. 석실(石室) 바닥에서 천정(天井) 높이는 2.3m이고, 석실벽(石室壁)은 갈색점토(褐色粘土)로 두툼하게 피복(被覆)했다. 또한 석실(石室) 안에는 동서방향(東西方向)으로 2차에 걸쳐 확정된 3인용의 시상(屍床)이 석실(石室) 네벽과 약간의 사이를 두고 설치(設置)하였는데 원래의 시상(屍床)크기는 동서(東西)길이 2.2m, 남북(南北)길이 1.4m, 높이 0.5m로 하였는데 1차 확장때는 30cm이고 2차 확장때는 간격이 40cm를 늘여서 남북 전체의 너비는 2.1m가 되었다. 시상(屍床) 상면(上面)은 자갈을 깔았고, 북편에는 제1차 매장인 두부(頭部), 견부(肩部) 별석(別石)의 석침(石枕)과 석제족좌(石製足座)가 동서(東西)로 놓였고 중앙(中央)에 제2매장의 석침(石枕)은 두부(頭部), 견부(肩部) 일석(一石)이었으며 족좌(足座)는 수키와를 사용(使用)하였다. 또 가장 남편(南便)에 2차장(次葬)의 위치는 석침(石枕)없이 수키와를 한 줄로 둘러서 구획(區劃)을 하였다. 선도(羨道)는 남벽(藍碧) 중앙(中央)에 달려있으며 길이는 1.6m였고, 석실(石室)입구는 잘 다듬지 않은 판상석(板狀石) 2매를 세우고 위아래를 작은 돌로 끼워 고정하여 막았으며 선도(羨道) 내부(內部)는 괴석(塊石)과 진흙을 쌓아 폐쇄하였다.

출토유물을 보면, 시상위에는 제1매장인으로 생각되는 것으로 보이는 허리부분에 철도자(鐵刀子), 제1매장, 제2매장인의 석침(石枕)사이에 청동제용기(靑銅製容器), 장경호(長頸壺), 제3매장인의 머리위에 금제이식(金製耳飾),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⑤서악리(西岳里) 장산토우총(獐山土偶塚)⁶⁾

선도산(仙桃山)에서 무열왕릉(武烈王陵)의 남(南)쪽으로 떨어진 구릉을 속칭 장피(獐山)라 부르고 있다. 이 고분(古墳)의 봉분(封墳) 크기는 직경이 약 19m 높이 7m로 되어 있다. 조사(調査) 당시(當時) 고분전면(古墳前面)에 확인(確認)된 호석(護石)의 구조(構造)는 할석(割石)을 2~3단(段)으로 쌓은 흔적이 일정(一定)한 간격으로 배치(配置)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석실(石室)은 봉분(封墳) 중심부(中心部)에 정남(正南)으로 향하여 축조되고 입지가 산의 경사면(傾斜面)이기 때문에 단면으로 보면 봉토(封土)를 「L」자식(字式)으로 파고 설치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석실(石室)의 크기는 동서(東西), 남북(南北)이 각각 2.8m의 방형이며, 네벽은 비교적 크기가 고르게 치석(治石)된 할석(割石)으로 단(段)을 맞추어 쌓았으며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 내경(內傾)되면서 쌓은 벽은 10매의 판상석(板床石)으로 덮었다. 그러나 벽에는 회칠(灰漆)의 흔적만 남아 있다

5) 尹武炳, 朴日薰 「慶州西岳里石室墳發掘調査」 1. 1968, pp.77~114

6) 新羅古墳研究, 崔秉鉉, 一志社, 1992. 1. 15, pp.460~468

나 조사 당시는 벽석이 드러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전면이 회(灰)로 덮혀 있었다. 현재의 석실 바닥에서 천정(天井)의 높이는 3.40m이다. 석실(石室)안에는 북벽에 붙여 제1시상을 설치(設置)하였는데 크기는 동서 길이 2.25m 남북 1.51m 높이 73cm이다. 제1시상은 동서(東西) 양쪽에 받침대를 하나씩 세우고 판석(板石)을 올려 놓은 것으로 양쪽의 받침대는 높이 70cm되는 판석(板石)을 면석(面石)으로 하고 면석(面石) 양 끝에 별석(別石)으로 된 우주(隅柱)와 가운데에 역시 별석(別石)으로 된 탕주(撐柱)를 세워 석탑(石塔)의 기단(基壇)처럼 만들었다. 받침대의 시상석(屍床石)은 두께 3cm되는 판석(板石) 2매를 틈이 없이 맞추고 그 위에 회(灰)를 두껍게 발랐다.

시상(屍床)위 동편(東便)에 단면(斷面) 삼각형(三角形)의 1매석(枚石)에 2인(人)용의 피장자 어깨받침, 머리받침, 관(冠) 받침을 나란히 새긴 석침(石枕)을 놓았고 서쪽에는 ㄷ자형(字形) 족좌(足座) 2개를 남북으로 놓았다. 제1시상(屍床)은 북편벽(北便壁)에 거의 붙어서 있으며 두께 6cm, 높이 16cm로 긴 석판(石板)들이 세워져 있는데 조사당시(調查當時)는 이러한 석판(石板)이 제1시상(屍床) 가장자리 4면(面)에 모두 들려 세워져 있었다 한다.

제1시상(屍床)의 남편(南便)에 인접하여 제2시상(屍床)이 놓였는데 제2시상(屍床)은 동서(東西) 양쪽에 자연석(自然石)을 받침으로 괴고, 길이 2.05m 너비 85cm의 판석(板石)을 올려 놓은 것으로 제1시상(屍床)보다는 낮으며 높이는 45cm이다. 제2시상(屍床)의 판석(板石) 위에도 회(灰)를 발랐는데, 가장자리는 회(灰)를 높게 쌓아 시상(屍床)의 윤곽을 세웠으며, 동쪽에 두(頭), 견부(肩部)를 좌우로 반쪽씩 이어서 새겨 쌓아 2매(枚)의 석침(石枕)을 놓았고 서편(西便)에는 지금 파손되었으나 「ㄷ」자형(字形)으로 윤곽을 세운 족좌(足座) 1개를 놓았다.

제2시상과 석실(石室) 남벽(藍壁)에 인접하여 동서(東西)양쪽에 자연석(自然石)으로 받친 판석(板石)이 놓여 있는데 길이 1.68m, 너비 0.5m 내외이며, 높이는 제2시상과 거의 같다. 이 판석(板石)도 원래 제3시상(屍床)으로 지금은 판석위에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으나 조사당시 동쪽에 작은 석침(石枕)이 하나 놓여 있었고 족좌(足座)는 없었다 한다.

제3시상은 조사당시 밖으로 들어내고 석실 바닥을 조사한 다음 다시 복원해 놓은 것이라 한다.

선도(羨道)는 석실(石室)의 남벽(藍壁) 중앙(中央)에 달렸는데 석실(石室) 크기는 선도(羨道)길이 1.45m, 비도(扉道)의 너비 1.20m, 높이 1.47m이다. 선문(羨門)에는 1매(枚)의 잘 가공된 판석비(板石扉)를 문턱이 세워진 문지방석과 창방석(昌枋石)에는 축(軸) 구멍이 좌우 양쪽에 나 있어 원래는 2매비(枚扉)를 달려고 하였던 것 같다. 석비(石扉) 밖의 연도(연道)는 비도(扉道)보다 높이가 15cm, 좌우 너비 각각 10cm씩 넓어졌다. 조사당시(調查當時) 선도내부(羨道內部)는 할석(割石)으로 폐쇄되어 있었다 한다.

비도(扉道)를 포함한 선도(羨道)의 총 길이는 4.30m이다. 지금은 역시 흔적만 남아 있지만 조사당시(調查當時)는 비도(扉道)와 선도(羨道)의 벽(壁), 천정(天井)에 모두 회(灰)가 두껍게 발려 있었다.

⑥ 황성동 폐고분(隍城洞廢古墳)⁷⁾

경주시(慶州市) 황성동(隍城洞) 북편(北便) 평지(平地)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주(慶州) 박물관(博物館)이 1987년도(年度)에 조사(調查)한 것으로 고분(古墳)의 기저부(基底部)만 잔존(殘存)하고 있다.

봉토(封土) 주변(周邊)에는 할석(割石)으로 호석(護石)을 돌렸으며, 석실(石室)은 봉분

7) 慶州博物館, 「황성동 폐고분 발굴 약보고」

(封墳) 중심(中心)에서 남향(南向)으로 설치(設置)하고 바다 일부가 파괴되었다. 벽석(壁石)은 활석으로 사용했는데 크기는 일정치 않다. 석실 평면(平面)은 길이가 장(長) 2.4~2.5m된다. 그리고 바닥에는 잔 자갈을 깔았다.

선도(羨道)는 남벽(藍壁)의 동(東)쪽에 편재되어 있고 길이는 약 1.8m이며 선도(羨道) 앞쪽으로는 나팔형같이 크게 벌어진 묘도(墓道)가 있었던 것으로 토층 구분(區分)이 된다.

두부(頭部), 견부(肩部)는 활석(割石)으로 된 석침(石枕)과 족좌(足座)의 파편(破片)이 발견(發見)되었다.

遺蹟名	頭枕	足座크기	비 고
① 西岳里 石枕塚	69.3×19.8cm	36.3×39.6cm	頭部만 새기고 足座는 3매의 돌을 구획 했음
② 西岳里 石室墳	① 73cm×38cm ② 50cm×20cm	45cm×40cm	2차 石枕은 1매석에 頭部, 肩部를 함께 파내었으나 다른 고분들이 1매석 석침에 비하여 어깨쪽의 길이가 대단히 짧다
③ 忠孝里 7號墳	52cm×25cm	① 外41×24×11.4cm ② 內13.3×15×8cm	石枕 1個가 棺臺 南쪽에 만들어진 단계 위에
④ 雙床塚	① 19cm×8.5cm ② 50cm×46cm	45cm×40cm	屍床위에 全身屍床이 놓이고 2차 시상에는 石枕, 足座가 놓였는데 石枕은 頭部, 肩部를 이어서 좌우를 절반씩 새긴 2枚石이고 足座도 左右로 있는 2枚石이다
⑤ 皇城洞古墳			頭部, 肩部가 別石으로
⑥ 西岳里 獐山土偶塚	1.3m×58cm	45cm×24cm	石枕 足座는 獐山土偶塚의 원래 屍床은 1枚石 2人用이고, 冠, 頭部, 肩部를 조각, 제 2시상 石枕은 頭, 肩部를 이어서 반대쪽으 새겨 이은 2枚石이다.

이상에서 고분의 구조(構造)와 시상대(屍床臺)의 석침(石枕), 족좌(足座), 두침(頭枕)이 출토되었으나 석침(石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III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골석제(滑石製) 석제두침(石製頭枕)이 발견(發見)에는 이양선기회(李養璿奇膾) 유물(遺物)속에 들어 있는 것을 발표(發表)한 예가 있다.⁸⁾ 주로 이 두침(頭枕)에는 선각(線刻)으로 인물(人物)을 표현(表現)했는데 갑주(甲冑)와 말을 탄듯한 선각(線刻)이 있고 기간(旗竿)과 봉상물(棒狀物), 계갑(桂甲), 머리에는 불 가리개를 몽고본형주(蒙古本形冑)를 착장(着裝)한 것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석실분(石室墳)에서 출토(出土)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다른 것은 백제무녕왕릉(百濟武寧王陵)⁹⁾ 발견(發見) 두침(頭枕)과 족좌(足座)가 있다.

이쌍(二雙)의 목제(木製)로 된 두침(頭枕)과 족좌(足座) 중에 상태(狀態)가 좋은 것은 왕비(王妃)의 두침(頭枕)과 왕(王)의 족좌(足座)이고, 왕비(王妃)의 두침(頭枕) 크기는 40×33.7cm, 왕(王)의 족좌(足座)는 39.5×21.9cm이고 두침(頭枕)의 상단(上段)을 중앙(中央)에서 반원(半圓)으로 파냈고 족좌(足座)는 상단(上段)을 W형으로 반원(半圓)이 되게 파냈다. 또 왕비(王妃)의 두침(頭枕)과 족좌(足座)에서는 귀갑(龜甲)의 장식(裝飾) 문양

8) 考古學誌 第3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pp.311~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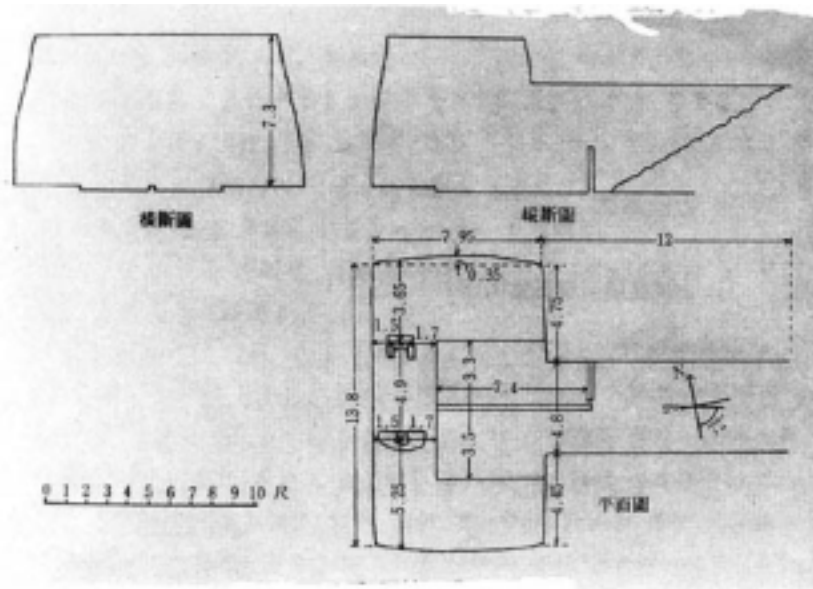
9) 文化財管理局 : 武寧王陵 發掘調查報告書, 1973

이 있고 왕비(王妃) 두침(頭枕) 귀갑(龜甲)의 안에는 그림이 있다.

왕비(王妃)의 두침(頭枕)과 왕(王)의 족좌(足座) 표면(表面)에는 주칠(朱漆)을 하고 족좌(足座)에는 흑칠(黑漆)을 하여 다시 구획(區劃)을 마련하여 그 안에 각종(各種)의 그림이 있다. 비천상(飛天像), 비봉(飛鳳), 용(龍), 인동문 등(忍冬文等)이 있는데, 이러한 그림들은 대부분(大部分) 불교(佛敎)와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6C 전반기(前半期)는 백제(百濟)에 불교(佛敎)가 전(傳)해진지 이미 1C 뒤의 일이고 왕릉(王陵)을 축조(築造)한 전실내(塼室內) 벽(壁) 전체(全體)에 연화문(蓮花文) 전(傳)을 들렸다. 대체로 죽은자를 위한 매장시설(埋葬施設)로서 두침(頭枕)과 족좌(足座)를 사용(使用)하는 예(例)는 백제(百濟)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삼국(三國)에 모두 그 예(例)가 있으나 다른 점은 고구려(高句麗)나 신라(新羅), 백제(百濟)에서도 나타나는데 고구려(高句麗)와 신라(新羅)에서는 재료(材料)가 석제(石製)나 활석(滑石)인데 반해 백제(百濟)것은 목제(木製)란 것이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고구려(高句麗)의 석실(石室)과¹⁰⁾ 신라(新羅)의 석실분(石室墳)도 구조적(構造的)으로 틀리는 점이 나타나고 백제(百濟)는 박축분(博築墳)에 목제(木製) 두침(頭枕)이란 점이 구조물(構造物)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된다.

어떤 양식(樣式)속에서 이루어 지지는 않지만 혹시 석실(石室)의 구조(構造) 자체(自體)와의 관계(關係), 즉 성분(性分)의 차이(差異)로서 석제(石製)와 활석(滑石), 목제(木製)를 매장(埋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일본의 동국지방(東國地方)¹¹⁾에는 석침내(石枕內)에서 출토(出土)된 석관(石棺)이나 족좌(足座)는 우리나라에서 출토(出土)되는 것과는 다른 양식(樣式)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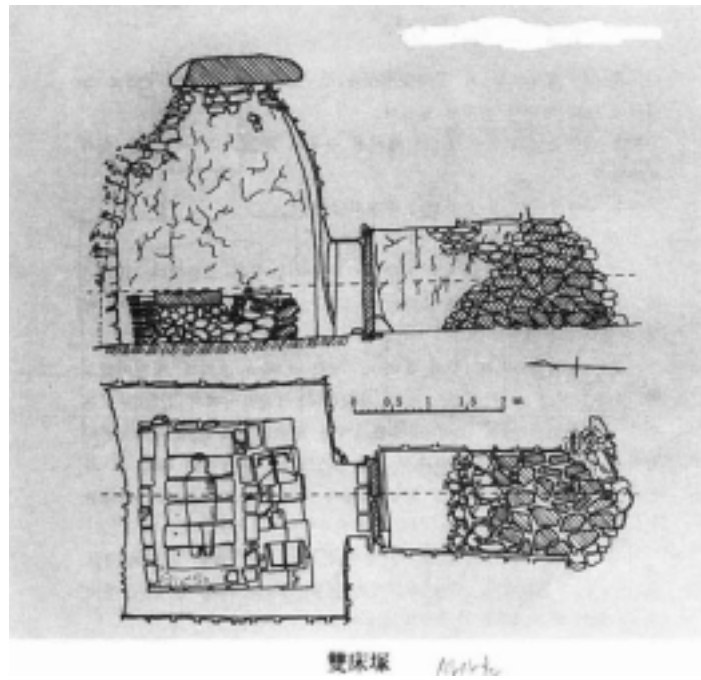


西岳里 石枕塚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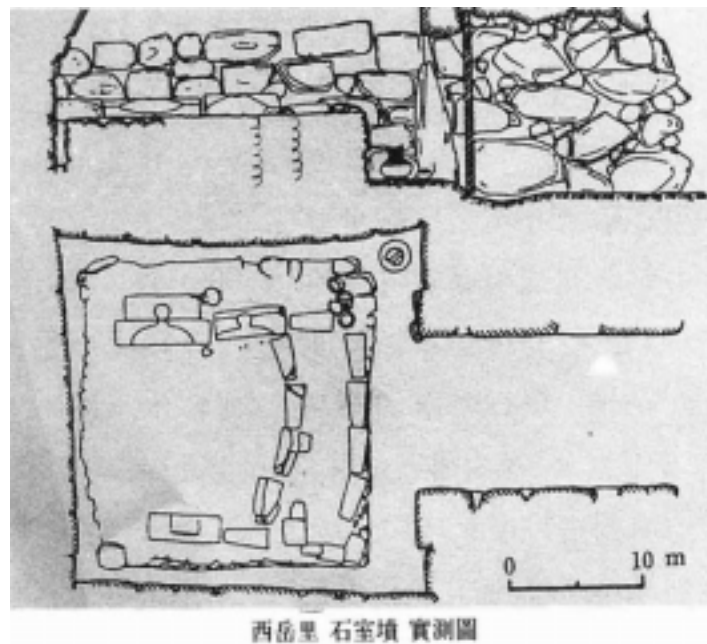
西岳里 石枕塚 實測圖

10) 土浦里大塚의 石殘缺, 朝鮮古文化 綜合鑑 第四卷, pp.9~20(圖版 38의 77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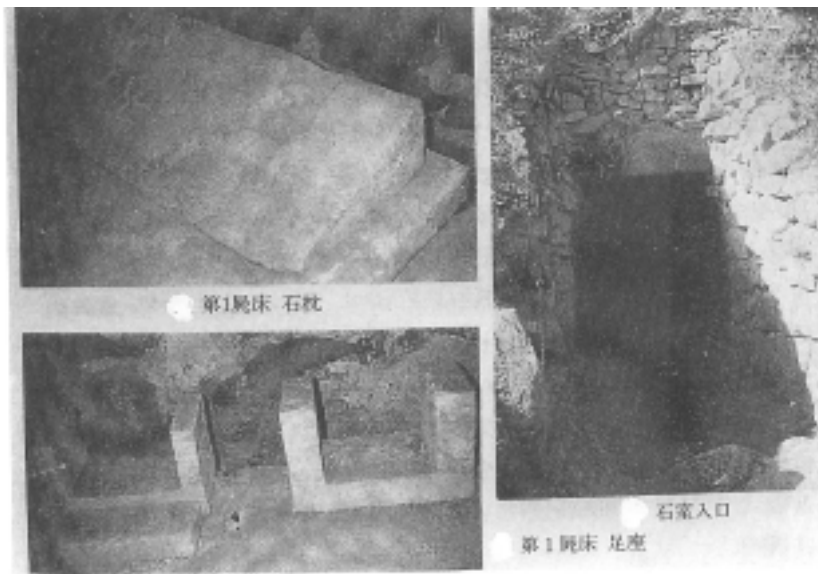
11) 古代探叢 東國の石枕 早稻田大學校出版部 昭和五十五年十月二十五日 沼譯 豊



雙床塚



西岳里 石室墳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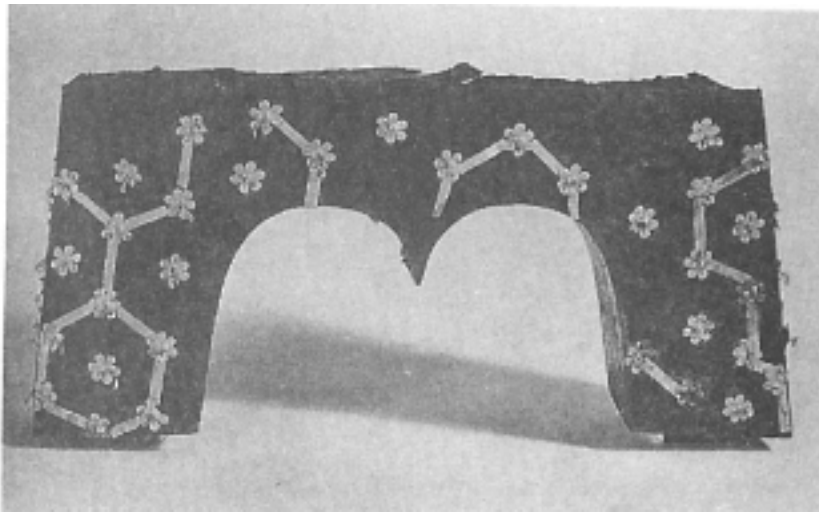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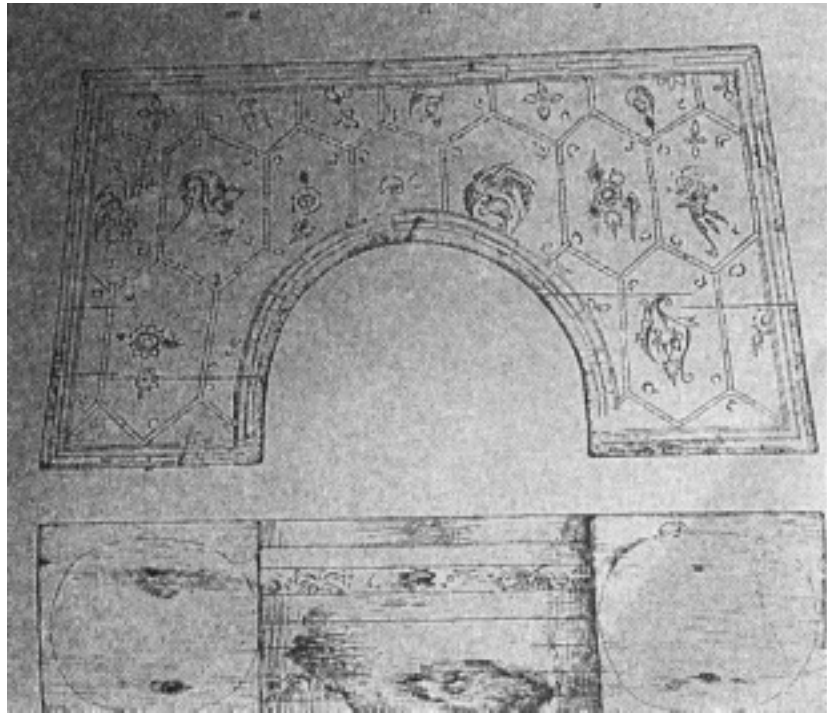
西岳里 簞山土偶塚

西岳里簞山土偶塚



土浦里大塚의 石枕破片

土浦里大塚의 石枕破片



武零王陵出土 木製頭枕, 足枕



全面(11.7×5.6cm×9cm)



後面(12.6×6cm×9cm)



滑石製頭枕